

14 교구 1 팀 단기선교 사역 보고서

1. 기 간 : 2015 년 8 월 18 일(화) ~ 2015 년 8 월 26 일(수) (8 박 9 일)
2. 국가/사역지역 : 캄보디아 / 캄퐁스프
3. 교구/교회학교 : 14 교구 / 1 팀
4. 팀 장 : 이 석 재 안집 (서명)  서기 : 김 성 옥 권사 
5. 보고일자 : 2015년 9월 6일
6. 보고내용 :

1. 사역에 대한 총평	주님은 우리들을 사명자로 부르시고 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만날 영혼들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특히 썩은(19세) 썩민(16세)을 동역자로 보내주셔서 팀 훈련 중에 그만 둔 두 분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유창한 통역으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영혼들은 대체로 불교도였으나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과 찬양을 잘 받아 드렸으며 우리들이 나누어주는 전도지와 성경을 귀한 선물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다. 우리들의 사역기간이 방학중이었지만 성령께서 기회를 주심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의 협조를 얻어 전도할 수 있었고, 수업 종료시간에 맞추어 도착하게 하셔서 성공적으로 전도할 수 있었다. 매순간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며 순수하면서도 열심히 배우려는 이 민족을 주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모두 건강하게 돌아오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2. 추천할 내용	학교길이나 사람들이 모여들만한 곳에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게 되고, 그 때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찬양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한 후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청소년이나 어른들 중에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었다.(사람이 많은 경우 소형 스피커와 마이크가 있으면 훨씬 유용할 것 같다)
3. 개선할 내용	1)효율적인 말씀선포를 위해 쪽 복음서를 제작하여 주는 시기가 지금이 매우 적절하며, 후에는 스마트폰등 문화가 더 풍족해지면 성경을 쥐도 보는 사람이 줄어줄 것이다. 2)현지인 통역자가 있으면 어린이, 성인, 가정예배 등 설교를 다양하게 준비하여 상황에 맞게 통역자와 함께 선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캄보디아는 전도지가 많이 부족했다. 지금보다 2배 정도가 더 필요하다.
4. 선교위원회와 건의사항	단기선교에서 만난 영혼들이 매일 주님과 함께 늘 동행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구체성을 갖는 선교정책이 요구되며, 우선은 주변에 교회가 있을 때 피하지 말고 영혼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알고 가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7. 현지 및 기사 정보

• 정치/경제		정치는 대체로 안정 경제는 매우 열악함		• 종교상황 • 치안상황	98%가 불교도이며 치안은 안정적이다.	
• 교회에서 배운 선교언어 현지인의 이해 정도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그 문항이 짧아서 전하는 내용이 극 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문제.				
* 기 사 정 보		성명	플러스		차종	벤츠 10인승
1일 비용	50\$				추천 여부	적극 추천 (0) 보통 추천 () 적극 반대 () 한국어 가능 () 영어 가능 ()
총 비 용	410\$	이메일				
기사 평가	성실하고 친절하며 정직하다고 생각되나 길을 찾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발생					

8. 추천하고 싶은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

도시 및 호텔명	요금(USD)		시설내역(유/무)		☎ 또는 이메일	
Mean Haur Hotel	2인1실	15\$	온	수 0	☎	855(023)88 58 58
	3인1실		냉	난 방 0	이메일	mnhotel@hotmail.com
	기타		아침식사	0		
숙 소 평 가	상급. 에어컨 잘나옴. 아침식사 포함된 가격.					
캄퐁스프 시티호텔	2인1실	15\$	온	수 0	☎	016 94 96 36
	3인1실		냉	난 방 0	이메일	kampongspeucityhotel@gmail.com
	기타	1인실 13\$	아침식사	x		
숙 소 평 가	상급. 에어컨 잘나옴. 시장과 가까워서 시간이 절약됨.					

9. 사역 경로

사역지	숙소에서 이동거리(KM)	이 동 소요시간	사역지 향후 전망 및 현지인 반응	사 역 지 교회유 무	전도방법
Bantoab	15Km	25분	거의 다 영접기도까지 함		축호전도.대중 전도.
Wat Phnom School	15Km	25분	"	유	"
tang Ruessei	20Km	30분	"		"
angrae Prey Chheu Teal	20Km	30분	Milton International School	유	"
Sran Srang	25Km	35분	"		"
Krang Teav	25Km	35분	"		"
Krang Kruos	30Km	45분	"	유	"
Samraong Chas	40Km	55분	Rolaing primary school Angmetret primary school	유	축호전도.대중 전도.학교교실 내 사역
Tang Syang	30Km	45분	"		"

10. 향후 인터넷 선교 가능한 피 접촉자 정보

성명	E-Mail 주소	영어능력(상/중/하)
쑥온(형.19세.남.고1)		한국어 상
쑥민(동생.16세.남.중3)		한국어 상
Lakhena(여동생.19세.프놈펜대1학년.영어과)		영어 상
Raty(오빠.28세.남.영어교사)		영어 상

소 감 문

지난7년 동안 단 한해도 쉬지 않고 선교를 다녀왔기에 올해만큼은 안식년을 갖으려고 마음으로 다짐했지만 주님은 올해도 여전히 부족하고 게으른 나를 부르셔서 책임을 맡겨주셨다. 돌이켜보면 이 복음이 오늘 내게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와 땀을 흘리고 선교를 당했으며 좁고 험난한 고난의 길을 걸었는지 감히 짐작할 수 있다. 이를 생각할 때 나의 초심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난 이번 단기선교는 철저하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다. 우리 팀은 9명으로 시작되었으나 불가피 두 분이 빠지고 7명이 출발하게 되었다. 함께하지 못한 동료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식탁에 앉아도 늘 누군가 없는 것만 같아서 허전한 마음에 인원을 확인하기를 여러 번 했었다. 이 생각은 비록 나뿐만이 아니라 팀원 대부분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신 주님은 캄봉스프에 도착한 다음날 쑤민(16세)을 만나게 해주셨고 이어서 쑤온(19세)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들은 매우 핸섬(handsome) 하고 주님을 영접한자들이며 우리 말에 능통하여 우리들의 사역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현지 상황에 따라 설교를 하면 그대로 동시통역이 가능해져서 주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지반응역시 뜨거웠고 기쁨에 찬 모습들이었다.

그곳에서 만난 영혼들은 대체로 불교도였으나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과 찬양을 잘 받아 드렸으며 우리들이 나누어주는 전도지와 성경을 귀한 선물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들었다. 우리들의 사역기간은 방학중이었지만 성령께서 기회를 주심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의 협조를 얻어 많은 학생들에게 전도할 수 있었고, 수업 종료시간에 맞추어 우리 팀이 도착하게 하셔서 전도의 때를 놓이지 않고 전도하게 하셨다. 매순간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들은 가는 곳마다. 말씀에 굶주린 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며 순수하면서도 열심히 배우려는 그 민족을 주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모두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린다.

14교구 1팀 이 석 재 안수집사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 팀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내놓을 것 죄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선교사로 보내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믿음으로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팀은 9명으로 구성 되었으나 사정으로 인해 7명이 선교지로 떠났다.

우리는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주님이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라 여기며 감사를 드렸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냥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현지인 청소년 형제를 만나게 해 주셨다.

한국어를 능통하게 잘하는 이 형제들이 선교사역을 함께하기를 청하여서 통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두 형제들과 함께 한 복음전파사역은 더욱 더 주님을 세밀하고 깊이 있게 전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그동안 캄보디아에 뿌린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교구 1팀 김 학 희 권사

주님!

이 죄인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다 생각하여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팀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2개 조로 나누어

캄보디아 캄봉스프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만나려고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무장하고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가 뿌린 이 복음을 씨앗,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감동스런 많은 영혼들이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분들을 위해 우리 선교사들은
 열심히 기도 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전도지, 영접기도, 찬양, 율동, 기도를 받으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도합니다.

14교구 1팀 박 종 숙 권사

가진 것이라고는 “죄”뿐인 자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혼자 누리기에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비밀인
 예수님을 전하고 오게 하신 것, 도구로 사용되어짐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참 찬양하며 율동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중에
 제 뒤에 와서 자주 옷을 잡아 당기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손목과 팔이 많이 다쳐서 민간요법으로 동여 메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또 6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는 왼손이 다섯손가락이 다 없어서 엄마 뒤에 숨어서
 주눅이 든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와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어루만지고 찬양하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두웠던 얼굴이 생기가 돌며 밝아지고 엄마 뒤에 숨었던
 아이는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가난하고 장애자이며 병들고 다친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며 영적으로 눈먼 자가 보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기도가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말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한국어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이
 다 알아듣게 하시는 역사를 하고 계심을 눈빛과 표정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썩은과 썩민 형제를 만나서 같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비해두신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팀이 온전히 하나 되어 기쁘게 즐겁게 각각 한분 한분의
 달란트를 최대한 빛나게 하셨습니다.
 기꺼이 종이 되어 다른 팀원들을 섬겼습니다.
 선교는 꿀맛이라는 경험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14교구 1팀 고 금 신 권사

이번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모두 함께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수3:5)
 첫 사역을 시작 하는 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사역에 임했습니다.
 권사님이 작년에 만난 자매도,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복음을 전해들은 한국말 잘하는 청년도,
 모두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장 통역자로 함께 동역 할 수 있는 사람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한국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와 학교에 다니는

예수님을 잘 믿는 썩은, 썩민이라는 믿음의 두 형제를 축호전도에서 만났습니다.

두 형제의 도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누가복음 4장 18절~19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마다 무표정하고 어두웠던 얼굴빛이 환하게 바뀌며 찬양을 통해 더 밝아지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일 오후, 한 마을 사람들 다수가 예수님을 믿지만 지금은 나가던 교회를 나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목사님이 떠나버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의 아픈 마음이 떠올라졌습니다.

“이 마을에 헌신할 주의 종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얼마나 앓을까?

자그마하고 예쁜 예배당이 보였습니다.

혹시 그 교회일까 싶어 들어가 보니 한국분이 2007년에 봉헌한 교회였습니다.

탁일 바닥으로 된 교회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나자 목사님 가족이 나오셨습니다.

나이트루 모리섬교회이며 껌쏘티에를 목사님이셨고,

10년 목회를 하셨고 어린 아이들 합하여 20명 정도의 교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참 열악한 교회의 사정에 또 다시 주님의 아픈 마음이 떠올라졌습니다.

함께 찬양과 기도를 하고 헤어져 조금 가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우린 차에서 내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기도를 한 후에 밝게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며,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혹시 좀 전에 들른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 3명이나 있었고,

모든 아이들에게 그 친구를 따라 그 교회에 나가라고 당부하고 손들고 약속까지 받은 후에,

그 일이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해가 저물어 어둑할 때 그 날 사역을 마쳤습니다.

다음날 월요일 오전사역은 더 멀리 가려는데 어제 오후 그 사역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반가워하며 100여 미터를 더 지나가자 초등학교가 보였고 수업 중이었습니다.

여름 방학 중이라 학교는 모두 쉬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그 학교는 3개 반이 공부 중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허락하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 보니 어제 만났던 아이들이 있었고,

우리를 아느냐고 물으니 손을 들어 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또 듣고 또 기도하고 또 부르고 또 율동하고

모르는 친구들을 가르켜 주면서 열심히 함께 했습니다.

10년 동안 목회를 해도 교인이 20명뿐인 교회가 하나님은 무척 안타까우셨나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교회가 있는 그 마을에서, 부족하지만 우리 선교팀을 통해

더 많이 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영접한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캄보디아 농어촌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교사역은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였음을 고백합니다.